

법무매거진

‘말기암 투병’ 윤성근 판사, 칼럼집 인세 2000만원 기부



법조인동정



〈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〉

말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윤성근(62)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언론 기고문 등을 모은 칼럼집 ‘법치주의를 향한 불꽃’의 인세 중 2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.

이날 법조계에 따르면, 윤 부장판사는 최근 칼럼집을 판매해 얻은 인세 2000만원을 북한 인권단체인 ‘물망초’와 자폐인들을 지원하는 ‘한국자폐인사랑협회’에 각각 1000만원씩 기부하기로 했다.

이 책은 지난달 투병 중인 윤 부장판사가 아들 결혼식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고 연수원 동기들이 힘을 합쳐 만든 것이다. IT 전문가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출간을 주도했다. 구글을 검색해 윤 부장판사가 그간 쓴

기고문을 찾고, 연수원 동기 187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추천사를 모아 이를 만인 지난달 17일 전자책을 냈다.

이후 ‘밤나무 검사’로 알려진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제작비 지원으로 종이책으로도 출간됐다.

칼럼집은 법조계에 화제를 모았고,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도움으로 초판 인쇄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인 이달 초 5000권 판매가 완료됐다고 한다.

강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부장판사의 기부 소식을 전하며 “근자에 이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선행을 본 적이 없다.”며 “자신의 삶이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사회와 타인에 대한 이타심의 불꽃을 피우는 윤 원장은 진정한 군자”라고 했다.

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지내고 일선으로 복귀한 윤 부장판사는 상설중재재판소(PCA) 재판관,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 전문가회의 한국대표단을 지낸 국제법 전문가다. 활발한 언론 기고로 사법 절차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.

(출처/조선일보)